

CNN “경찰 ‘권총난사’ 이유는 훈련 때문”

지난 23일, 위스콘신주 커노사에서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가 세 아들 앞에서 경찰이 쏜 7발의 총을 맞고 쓰러졌다. 블레이크는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 마비로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라 관측이다. 이 사건으로 커노에서는 경찰의 총격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져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지난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CNN은 전날 그 이유에 대해 전했다. CNN은 “경찰이 한 발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총을 수차례 쏘는 이유는, 대개 경찰은 용의자가 자신을 죽이거나 해를 가할 수 있겠다 싶으면 제압에 필요한 만큼 총을 쏘도록 훈련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법대의 세스 스톤 교수도 “경찰이 이런 상황에 부닥쳤을 때 ‘모범 답안’은 용의자를 제압할 때까지 쏘는 것”이라며 “이들은 총을 여러 발 쏘게 되면 중간에 멈추지 말고 신속히 연사하도록 훈련 받는다.”고 설명했다. 용의자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총격을 멈춘 사이 용의자가 추가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스톤 교수는 경찰이 총을 쏜 횟수는 법적으로도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불합리한 체포·수색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4조에 따라 경찰이 격발한

이유가 타당했는지는 따지지만, 격발 횟수의 타당성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위험 상황에서 경찰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판단력이 흐려지는 점도 난사를 하게 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찰 훈련 전문가인 세드릭 알렉산더는 “스트레스가 많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위험 상황에서 경찰은 격발 횟수를 세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즉각적인 위험 상황에 있다고 보는 경찰관은 “뇌가 따라잡을 때까지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총기 없이 상대를 제압하는 훈련이 부족한 점도 어우러져 경찰의 총 난사가 자주 벌어진다고 CNN은 설명했다. 경찰이 맨손 제압술 등을 충분히 익히지 않아 이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서 총기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스톤 부교수는 “경찰이 (총기 없는) 물리적 제압 기술에 익숙할수록 총기 등 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적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대체로 다수 경찰이 한 용의자에게 동시에 총을 쏘는 점, 이들의 총기 명중률이 낮은 점, 연사가 쉬운 총기를 사용하는 점 역시 경찰이 여러 차례 격발하는 요인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화마를 이겨낸 수령 2천 년 삼나무 숲



▲ 산불이 나기 전 삼나무 숲의 모습(위). 대형 산불 버터낸 삼나무. 사진=national-park.com & Mercury News 화면 캡처

대형 산불을 이겨낸 수령 2천년의 고대 삼나무(레드우드) 숲이 희망을 전했다.

지난 27일 ‘연합뉴스’가 AP통신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산불이 덮친 캘리포니아주 ‘빅 베이슨 레드우드(삼나무)’ 국립공원은 1902년 문을 연,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으로 최고 수령 2천 년에 달하는 삼나무가 뿔뿔이 들어차 있다.

빅 베이슨 공원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72km 떨어져 있으며, 지난 20일 일

리콘밸리 남서쪽에서 발생한 산불이 덮치면서 삼나무 숲도 화염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AP통신이 현장을 취재한 결과 고대의 삼나무들이 불에 타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AP는 “‘숲의 어머니’로 불리는 100m 높이의 삼나무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삼나무들은 수액이 없는 단단하고 두꺼운 껍질로 둘러싸여 있어 웬만한 불길도 견뎌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나무 보존 환경단체 ‘템퍼비런스 펀드’는 “삼나무들은 이번 산불보다 더 심한 화재를 몇 차례 겪은 적이 있다.”며 “하지만 숲은 사라지지 않았고 다시 자라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15일 시작한 캘리포니아 북·중부 지역 산불로 지난 27일 현재까지 서울 전체 면적(약 605km²)의 9배에 달하는 140만 에이커(약 5천666km²)의 산림이 불에 탔다. 확인된 사망자는 7명이고, 1천 500채의 가옥과 건물이 불에 탔다.

다만, 기상 조건이 호전되면서 규모가 큰 몇 개의 산불은 조금씩 불길이 잡히고 있다. AP는 폭염의 날씨가 다소 진정되면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해양에서 유입된 차갑고 습한 대기가 산불 진화를 돕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해 선생과 풀어 보는 한주간의 띠별 운세

8월 31일 ~ 9월 6일, 2020년

청해 역학 학술원(淸海 易學 學術院)
 예약전화: (714) 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p>남자 길일 : 2, 3, 6</p>	<p>여자 길일 : 31, 1, 4, 5</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쥐</p> </div> <p>욕심을 부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겸양의 도는 어디에나 통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구름 속에 있는 달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니, 분수에 넘치는 일은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적으로 교섭과 거래는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말</p> </div> <p>종교나 학문, 연구 분야에 몰두하면 스스로의 능력을 좋은 면으로 발전, 승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지 말아야 합니다. 구설수가 두렵습니다. 넓은 덕을 베풀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생활하여야 합니다. 때를 맞추어 일을 한다면 나아가 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애정△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소</p> </div> <p>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생활해야겠습니다. 마음에 확실히 정한 바가 없으면 좋은 때를 놓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운세이므로 뜻밖에 황재하여 재물이 생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기를 당하여 재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신속하게 때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양</p> </div> <p>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아서 분주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많은 업무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들지 말고, 사소한 문제는 보류하여 마음의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협조를 구하거나, 양보할 것이 있다면 양보하여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하면 도리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법입니다. 금전○애정○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범</p> </div> <p>바른 길을 지키면 무사태평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감정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면 손해가 따를 것입니다. 성급하게 일을 벌이지 말고 여유있게 준비하면서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새로운 일의 성공을 위해서는 첫출발이 좋아야 하지만, 현재 자신의 입장을 돌이켜 살펴 보아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원숭이</p> </div> <p>산 위에서 나무가 조금씩 자라듯이 점진적인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모하고 경솔하게 일을 진행하면 좋지 못합니다. 차근차근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는 뜻 사람들의 선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끈고 바르게 가져야 아름답습니다. 사업은 순서와 절차에 따라 거래를 해야 유리합니다. 자금이나, 인력 등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애정○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토끼</p> </div> <p>왕성한 의욕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넓은 아량으로 밝은 덕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붉은 격렬한 성질이 있으므로 경솔한 행동을 삼가야 하고, 자신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때는 모든 일을 주도면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윗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닭</p> </div> <p>평소에 덕을 쌓고 겸손하게 생활하면 복록이 저절로 생기겠으나, 타인을 무시하고 자기 본위의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의 신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입장이거나 교육자라면 특히 대길한 운세입니다. 새로운 사업의 확장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염</p> </div> <p>운수가 대길하니 뜻하는 일을 순조롭게 이룰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단결이 잘되므로, 새로운 계획에 착수하여도 순풍에 돛단 듯 어려움 없이 발전합니다. 포부를 크게 갖고 성심으로 노력하면 더욱 길합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면 교만과 태만에 빠지기 쉬우니,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위아래의 화합에 힘써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개</p> </div> <p>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한 법. 일상생활에서 절제가 필요하며, 정도를 벗어나면 좋지 못합니다. 비리를 탐내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지키지 않거나, 헛된 일을 가까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인배의 접근을 자연스럽게 막아야 합니다. 가까이하면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금전△애정○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돼지</p> </div> <p>새로운 사업을 무리하게 시도하면 좋지 못하니, 먼저 내부관리를 충실히 하고 현상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관망한 다음에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면 때때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금전△애정○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돼지</p> </div> <p>행동을 조심하고 주변 사람들을 겸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도리에 맞는 생활을 하면 저절로 복록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한 법이니, 많아서 넘치는 것이 있으면 모자라는 곳에 덜어 주어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은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p>